

현실 및 가상공간에서의 집단범주화 방식과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집단성 지각 및 내집단 편애

김미희
중앙대학교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차영란
수원대학교

Tajfel 등의 사회정체감에 관한 실험에서 내·외집단 범주화 방법은 그림번호나 점 추정과제에서 과다 추정자와 과소 추정자로 나누어 집단을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집단 범주화는 집단성원들과 유사성을 지각하거나 집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내·외집단 범주화(실험자 임의구분, 그림번호에 따른 범주화)와 집단 교류유무(대면접촉이 없는 최소집단과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면집단)에 따라 집단성 동질감 유사성 근접성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집단성 지각이 내집단 편애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도 단순한 집단 범주화만으로도 집단성이 형성되는지, 이러한 집단성이 대면 접촉은 없지만 최소집단과 문자 대화로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채팅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집단성이 내집단 편애행동(분배과제)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최소집단 상황과 달리 대면 접촉이 가능하고 더욱이 서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대면토론 상황에서 내집단 성원들에 대해 더 동질감, 유사성, 근접성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내집단 성원에 대한 평가 호감과 친근성에 있어서도 최소집단보다는 대면집단에서 더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면접촉과 내집단 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집단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내집단 성원에게 더 많은 보수나 점수를 주는 분배편파나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인상평가상의 편파를 보였다. 최소집단과 채팅집단간 집단성 지각과 내집단 성원평가에 차이는 없었지만 내집단 편애 경향이 나타났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내집단 성원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분배하는 내집단 편애 경향이 나타났다.

주요어 : 최소집단, 범주화, 집단성, 내집단 편애, 인터넷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존재이며, 한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한다(Brown, 1988; Burr, 2002).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인-대집단(interpersonal/intergroup)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인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속성(예를 들면, 이름, 성격, 태도, 지능 등)을 바탕으로 다른 개인과 교류를 할 때 보이는 행위이다. 반면에 대집단 행위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특성(예를 들면, 성, 대학, 출신지, 직업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교류하는 행위이다. 전자의 경우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Tajfel, 1978)¹⁾. 모든 대인관계 행위는 결국 이 대인-대집단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분석되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큰가 하는 것은 집단이라는 범주가 얼마나 명확히 부각되는가와 집단 내 동질성이나 응집력과 집단간의 차이 여부이다(Brown, 1988). 만약 두 개 이상의 집단이 현저하게 부각되거나 집단 내 동질성이 강하고 집단간 차이가 크다면 대집단 행위가 나타나기 쉽다.

“언제 사람들은 집단이 실제적이라고 지각하는가?” 만약 사람들이 상황을 실제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실제가 된다. 따라서 집단이 실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대인적 결과를 가져온다. Campbell(1958)의 실체성(entitativity)에 대한 분석은 왜 어떤 집단들은 실제집단으로 간주되고 다른 집단들은 단순히 개인들의 무리로 여겨지는가를 설명해준다. Campbell은 대상들을 통합된 전체로서 지각하는 정도를 기술하기 위해 실체성(entitativity)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개인들의 집합을 집단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몇 가지 지각적 단서들에 의존한다고 제안했다. 첫째는 공동 운명성으로 군중 속의 개인들이 동일한 혹은 상호 연관된 결과를 경험하는 듯이 보이는 정도이다. 두 번째는 유사성이다. 개인들이 동일한 행동을 나타내거나 서로 닮은 정도이다. 세 번째는 군중 속의 개인들간의 거리 즉 근접성이다.

많은 연구들이 실체성에 관한 Campbell의 분석을 지지하였다. 즉, 사람들은 모든 집단성원들이 공동운명을 겪을 때(예를 들어, 그들이 함께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집단

에 더욱 동일시한다(Deutsch, 1949). 새로이 형성된 집단의 성원들은 그들이 유사하지 않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을 때보다 많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한다고 들었을 때 더욱 하나의 통일된 집단으로 반응하였다(Knowles & Brickner, 1981; Schachter, Ellertson, McBride, & Gregory, 1951). 예컨대 개별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그들이 한 집단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들은 이 명칭을 받아들였고, 그 후 그들의 ‘집단’이 실패한 후에 자신들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Zander, Stotland, & Wolfe, 1960). 근접성도 또한 실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때 장거리 전화회이나 컴퓨터를 통한 토론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집단수준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Kraut, Egido, & Galegher, 1990; Lea & Spears, 1991).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집단 전체의 합의에 동의하게 되면서 우리의 태도와 가치를 점차적으로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Newcomb, 1943). 집단성원들이 집단에 동일시하게 되면서 그들의 자기의식은 개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집합적 요소까지 포함하면서 변화하게 된다(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우리의 행동목록도 우리가 소속된 집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철수라는 아이는 친구들과 농구를 할 때는 외향적이고 거칠게 행동하지만, 강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소속감을 갖게 될 때에는 개인으로 남아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집단적 표상, 즉 사회적 정체감에 쫓아 행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는 집단규범에 대한 동조, 내집단원과의 협조, 외집단에 대한 차별과 같은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인간의 집단성이 내부 구성원에게는 사랑으로, 외부 구성원에게는 적대감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시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Darwin이다(황상만, 2000). 그는 인접 구역에 거주하는 종족들은 항상 서로 싸운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하면서, “야만인도 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기까지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사실은 인간 행동은

1) 이를 Cooley는 집단의 속성(집단의 크기, 지속시간, 통일성, 조직 등)에 따라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국 문화에서는 1차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가족이나 친구(또래)집단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최상진(2000)은 ‘우리성’ 집단이라 했다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느 집단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새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단성은 동료와의 오랜 우정을 요구하지도, 다른 그룹 구성원들과의 오랜 대립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Tajfel (1981)은 실험을 통해 집단성(groupness)의 기초가 되는 집단 정체성이 아주 짧은 순간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성을 형성하는 과정에는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할 영역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또 외모와 행동에 있어서 눈에 띄는 차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료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다. Tajfel(1981)은 단순히 집단을 나눌 수 있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배타적인 집단성을 형성하며, 상대방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집단을 구분하는데 다양한 범위의 범주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범주화는 내집단원(ingroup members)과 외집단원(outgroup members)으로 나누는 것이다.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의 구분은 사회심리학적 현상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범주화는 우리 주위의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단지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인간 관계 또는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 편애 또는 편파(ingroup favoritism 또는 ingroup bias), 집단간 차별(discrimination), 편견(prejudice)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내집단 편애는 외집단 보다 내집단에 호의적인 정도, 즉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내집단에 더 호의적인 정서, 평가, 행동 및 행동의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30여 년 전에 Tajfel은 사회적 범주화와 집단간 차별간의 관계성을 탐색하고자 최소집단 패러다임(minimal group paradigm)이라는 복잡한 연구절차를 기술했다(Tajfel, 1970; 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 최소집단 상황에서 내외집단의 구분은 아무런 사회적 의미나 심각성이나 추후 교류가능성이 없이 임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집단 성원을 좋게 평가하고, 더욱 보상하려 들고, 그들로부터 우호적인 행위를 기대하고, 다른 집단 성원들이 돈을 갖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Billig & Tajfel, 1973; Turner, 1980,

1982, 1983;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단지 외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집단간의 경쟁이나 내외집단의 차별적 행동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지각과제나 분배과제를 다룬 다른 연구에서도 외집단 보다 내집단에 대해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된 지각과 행동을 보였다(홍기원, 1994).

그 후로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Aschenbrenner & Schaefer, 1980; Bornstein, Crum, Wittenbraker, Harring, Insko & Thibaut, 1983), 이러한 사회적 범주화가 사람들이 내집단 편애나 집단간 차별을 보여주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수많은 최소집단 연구들이 실행되었다(김금미, 2001; 이해경, 이수원 1994; Tajfel, 1982).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내집단 성원과는 미래의 교류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우호적인 행위가 장차 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집단 선호경향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미래의 교류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Tajfel의 사회정체감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인 자신의 정체감을 지니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이러한 정체감의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이 제공하며 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한다는 인식에서 자기 정체감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외집단과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가능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내집단 편애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실험 상황과 같이 아무런 사회적 의미가 없는 집단의 구분에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여전히 집단의 성원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최소 범주화를 동일시하고 실험맥락에서 자신을 정의하는데 이를 사용한다. 따라서 자신의 내집단과 비교 가능한 유일한 외집단과 비교하면서 긍정적인 상대적 평가를 얻어내는 방법은 그 상황에서 가능한 차별행위(즉, 보상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것)를 보이는 것이다(Brown, 1988).

따라서, 사회정체감 이론의 핵심은 개인이 범주화에 따른 자기의 내집단과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외집단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집단과의 동일시는 독립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서구 개인주의 문화

권에서보다는 집합주의 문화권에서 더욱 강할 것이고, 따라서 정체감이론은 비록 서구에서 개발되었지만 그 적용 가능성은 집합주의 문화권에서 더 클 수 있다(고재홍, 2001; Han & Park, 1995).

한국적 집합주의 상황을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우리관계나 우리집단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예로 '우리'라는 말의 일상적 쓰임을 들 수 있다(최상진, 2000). 우리가 강조되는 집단상황에 접하게 되면 개인의 개별적 특성의 함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자체의 독특한 특성과 역동성이 나타난다. 즉, 한국의 '우리'는 개인들의 집합체이지만 개인이 사라진 동질적 유대개념이다. 한국인에게서 '우리'는 성원에게 집단화목을 위한 노력,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개인의 자율성, 개성의 표현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인들이 '우리'라는 어휘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의 특징은 '정', '친밀감', '상호수용'으로 피부로 느끼는 인간관계적 측면이다. '우리'라는 느낌을 갖게 되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가족처럼 가깝게 정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우리'는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지향하는 정서를 지니고 있다(최상진, 1993; 한규석, 1995).

현실 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우리'라는 집단의식)의 경험은 같은 곳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공간에서처럼 순식간에 집단형성이 일어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다. 인터넷의 영향이 긍정적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의심 많은 인간들은 컴퓨터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궁금했다. 온라인 상의 수많은 상호작용에는 일반적인 사회적 단서가 없을 뿐 아니라 만남도 일시적인 것이기에 진지하고 만족스러운 집단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가 현실 공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현실 공간보다 더 빠르게 집단형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성은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배타적인 행동이나 압력을 유발 할 수도 있다(Wallace, 1999).

대부분의 사이버 공동체는 동일한 관심 속에서 서로 쉽게 만났다가 또 쉽게 사라지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이 속에서 공동체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기도 전에 개인은

이미 다양한 참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기도 하였다. 공동체적 특성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경험한 새로운 정체성을 사이버 공간 속 다른 사람들과 상호 공유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각 개인은 무한 공간 속에서 유한 집단으로 존재하며, 서로 공유하는 특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경험한다(황상민, 2001). 때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체적 활동이 현실 공간의 공동체나 개인활동처럼 아주 순간적이며 감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상 공동체로 시작되었다가 현실공간의 열렬한 응원팀으로 발전한 '붉은 악마' 동호회이다.

이와 더불어 이 공간에서 부여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기존의 공동체적 경험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버 동창회 사이트들은 현실공간의 공동체가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양식의 공동체로 살아나는 예가 된다. 이 사이트를 통해 잊혀졌던 친구들을 찾고 새로운 동호회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가졌던 학교 공동체를 현재 자신의 개별적인 정체감으로 유지하면서 옛 친구라는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기도 한다. 같은 학교출신이라는 과거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공유된 경험이나 같이 생활하면서 겪은 일들을 기초로 새로운 사이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어느 정도만 참여하면 자신들이 참여하는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참여는 바로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이다. 이 공유경험은 바로 그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집단성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즉, 자신이 자주 참여하는 공간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질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더욱 친밀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적어도 내가 아는 아이디(ID)가 있다면 마치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 된다. 그러면 사이버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집단성이 내집단 편애나 차별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내집단 편애에 관한 여러 실험에서(Tajfel, 1978, 1982), 내·외 집단으로의 집단 범주화는 절 추정 과제, 그림선호 및 제비뽑기와 같은 지각 유사성에 따른 집단구분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최소집단 상황이라 할 때에도 그 구분 범

주화가 개인에게 의미 있는 정도에 있어서 매우 상이 할 수 있다. 즉, 집단 구분 기준이 개인의 지각적 선호나 유사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험 참가자의 성격, 취미, 선호 혹은 태도유사성 등과 관련되면 실험실 상황에서 조작을 했더라도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구분에 있어서 기존의 그림 선호에 의한 집단구분 방법과 실험자에 의해 강제로 A 또는 B집단으로 할당된 임의의 구분조건(forced condition)을 비교하여 피험자들의 내집단에 대한 집단성 지각(동질성, 유사성, 근접성)과 내집단 편애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서로 대면 할 기회가 없었던 최소집단상황과 달리 서로 대면 토의할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누가 내집단 성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면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의집단 범주화에 따른 내집단에 대한 집단성 지각 정도와 내집단 편애에 있어서 최소집단 상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컴퓨터로 이루어진 환경에서도 단순한 집단 범주화만으로도 집단성이 형성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상의 수많은 상호작용에는 일반적인 사회적 단서가 없을 뿐 아니라, 만남도 일시적인 것이기에 정말 진지하고 만족스러운 집단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수없이 많은 포럼들이 쉽게 사라져버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아주 강한 '집단성'을 형성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Korenman & Wyatt, 1996).

인터넷의 최소집단은 단순히 동일한 집단 ID(A-1, A-2)만을 부여받은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채팅집단은 서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상황으로 대면적인 상호작용은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현실에서 뿐 만 아니라 가상적인(virtual) 공간인 인터넷에서도 내·외집단 범주화에 의해서 집단정체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집단성이 내집단 편애 행동이나 인상평가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집단범주화에 따른 집단성 지각의 차이

와 내집단 편애량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최소집단 패러다임을 응용하여 현실 상황에서의 실험(실험 1)과 인터넷상에서의 실험(실험 2)을 실시하였다. 집단범주화에 있어서 Tajfel의 연구와 같이 서로 상호작용이 없는 최소집단과 대면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대면집단을 비교하여 내집단 편애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험 1

연구문제 1. 집단 범주화 방식(실험자 임의의 집단구분, 그림 선호에 따른 집단구분)에 따라 집단성 지각 및 내집단편애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임의의 집단보다 그림선호 집단에서 높은 집단성 지각(동질성, 유사성, 근접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임의의 집단보다 그림선호 집단에서 많은 내집단 편애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2. 최소집단과 대면집단 조건(집단교류 유무)에 따라 집단성 지각과 내집단 편애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대면집단이 최소집단보다 집단성(동질성, 유사성, 근접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다.

가설 2-2. 대면집단이 최소집단보다 내집단 편애 경향을 많이 보일 것이다.

실험 2

실험 2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단순한 집단 범주화가 내집단 편애를 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세계인 온라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내집단 편애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연구문제 1. 집단 범주화 방식(실험자 임의의 집단구분, 그림 선호에 따른 집단구분)에 따라 집단성 지각과 내집단 편애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임의의 집단보다 그림선호 집단에서 높은 집단성 지각(동질성, 유사성, 근접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임의의 집단보다 그림선호 집단에서 많은 내집단 편애가 나타날 것이다.

- 연구문제 2. 최소집단과 채팅집단 조건에 따라 집단성 지각과 내집단 편애에 차이가 있는가?
- 가설 2-1. 채팅집단이 최소집단보다 집단성(동질성, 유사성, 근접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다.
- 가설 2-2. 채팅집단이 최소집단보다 내집단 편애 경향을 많이 보일 것이다.

실험 1

실험 1에서는 내·외집단 범주화(실험자 임의구분, 그림선호)와 최소집단/대면집단상황에 따라 집단구분을 했을 경우에 분배과제에서 내집단 편애경향이 나타나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서로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최소집단과 서로 토의를 하는 대면 집단에서 내·외집단 범주화에 따른 내집단 편애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실험참가자

서울 지역의 종합대학에 다니는 남, 녀 대학생 120명(여학생 60명, 남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심리학의 이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었고 실험참여 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설계

본 실험의 설계방안은 2(집단범주화방법 : 임의구분/그림선호)×2(최소집단상황/대면집단상황)의 요인설계방안을 이용한 완전무선설계(between subjects design)를 하였다. 집단범주화 방법에서 임의구분은 실험자가 임의로 A 또는 B 집단으로 구분한 조건으로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임의로 할당된 집단이며, 그림선호에 의한 집단구분은 두 가지 그림 중 피험자 자신이 선호하는 그림을 선택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집단 A 또는 B로 무선 할당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림선호에 의한 집단구분 방법도 어떤 그림을 선택했는가에 관계없이 집단을 구분한 조건이었으나 피험자들은 자신의 그림 선택에 따라 집단이 구분되었다는 유사성 지각을 강조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각 조건 당 15명씩 총 120명의 대

학생을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처치

집단 범주화방법

실험자 임의의 집단범주화조건에서는 보조 실험자가 실험 참가자들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임의로 '당신은 A집단입니다' 또는 '당신은 B집단입니다'로 범주화하여 집단 A 또는 집단 B로 범주화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순서를 상쇄하여 범주화하였다.

그림선호에 따른 범주화조건에서는 어린이 사생대회 입상작 두 가지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호하도록 한 후에 '1번 그림을 선택하셨네요, 당신은 집단 A입니다'라고 하여 집단 A와 집단 B로 실험참가자들을 각각 범주화하였다.

집단 교류 유무(최소/대면집단)

최소집단은 Tajfel 등(1971)이 제시한 최소집단상황(minimal group situation)에 가급적 근접하도록 실험상황을 설정하였다. 즉, 다른 피험자들과 얼굴을 대면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한번에 한 사람씩 참가하게 하였다. 대면 집단은 최소집단과 달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 할 기회를 준 상황이었다.

종속변인 측정치

집단 및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평가 문항

총 7문항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 및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평가문항이다. 먼저 실험 조작검증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가"하는 집단선택의 자유성에 대한 문항, 집단성 지각과 관련된 문항으로 "같은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배를 탔다거나 혹은 모두 함께 한다는 동질감 내지는 일체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동질감 지각,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과 어딘지 모르게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유사성,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근접성 지각이 있다.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인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평가(호감, 친근성)문항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배 과제

내집단 편애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참가의 조건으로 5점의 점수를 분배한다고 설명하고 피험자들에게 자신의 내집단과 외집단인 A집단과 B집단 성원들에게 분배할 점수를 0에서 10점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분배과제를 실시하였다. 10점의 점수를 두 집단이 나눠 갖는 분배는 전적으로 피험자 자신들의 의견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A집단과 B집단 성원에게 분배한 점수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절차

실험은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여 실험실 밖에서 2명씩 대기한 후 한 명씩 실험실로 입장하여 실험 참가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실험 전 설문지를 작성한 후, 집단범주화 방법에 따라 A 또는 B집단으로 구분되어 집단성을 묻는 사후설문지 작성한 후 분배과제를 수행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최소집단상황에서, 실험자 임의집단구분 조건은 실험 전에 시간표를 작성하여 개인별로 심리학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약속된 시간에 피험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각 개인별 사전 측정설문지(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태도)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끝낸 후 실험보조자가 “당신은 A집단입니다 당신의 ID는 A-1입니다”라고 설명해준 후 차례대로 ID를 부여하였다. A집단으로 할당된 피험자들은 자신의 ID가 적힌 파란색 명찰(A-1, A-2…… A-15)을 착용하도록 하고, B집단에 할당된 피험자들은 빨간색 명찰(B-1, B-2, … B-15)을 착용하도록 했다. 그 후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명확하게 인지해주기 위해서 PC모니터에 A 또는 B 집단이라는 글을 띄어주었다.

그 후 개별로 분배과제를 실시하였다. 이 분배 과제는 내집단 선호 경향을 알아보는 과제로서 “이 실험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A집단과 B집단의 성원에게 각 5점씩 10점의 학점을 나누어주는 데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점수분배의 번호에 체크해달라”고 요구했다. 즉, A집단과 B집단의 성원들에게 얼마의 점수를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제이다. 단 이 점수는 자신의 점수가 아니라 자신이 소속한 A 또는 B집단 성원들의 점수라고 설명했다.

그림선택에 따른 집단 범주화에서는 사전 설문지 작성

후 PC에 고정시켜 놓은 두 가지 그림 중 선호하는 그림을 선택하게 한 후 그림선택 결과에 따라 A 또는 B 집단으로 구분하였다(“1번 그림을 선택하셨네요, 당신은 A집단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여기서 사용된 그림은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수상작 두 개 작품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림선택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집단 A 또는 집단 B로 구분하였다. 그 외 다른 사항은 강제 집단구분조건과 동일하다.

대면집단 상황에서, 실험자 임의집단 구분조건은 강의실에서 그림선택에 의한 집단구분 조건은 실험실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실험자 임의 집단구분 조건은 피험자들에게 각 개인별로 사전설문지(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태도)를 작성한 후에, 실험자가 즉석에서 피험자들을 임의로 A집단과 B집단으로 구분하였다. A집단의 피험자들은 A-1, A-2…라 적혀진 파란색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B집단의 피험자들은 B-1, B-2…라 적은 빨간색 명찰을 착용하도록 했다.

피험자들이 서로 원을 그리고 앉아서 자기 소개를 한 다음 집단토의를 실시하였다. 토의 주제는 토의 중간에 격렬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축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포지션을 정하도록 하였다. 즉, 각 집단의 인원수로 축구팀을 구성하는 과제로서 각자 공격수, 수비수, 후보선수, 감독 등 축구 포지션을 정하는 토의를 실시하였다. 토의가 끝난 후 각 집단의 리더가 축구 포지션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하였다. 집단토의가 끝난 후 각 집단에 대해 분배과제를 실시하였다.

그림 선택에 따른 집단범주화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실에 들어오면 각 개인별로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은 실험자 강제집단구분조건과 동일하다. 사전 설문지를 작성한 후 피험자들은 개별로 한 사람씩 실험실 모니터 앞으로 나와 모니터에 있는 두 가지 그림을 본 후, 그 중 선호하는 그림을 하나 선택하게 하였다. 여자 실험보조자인 대학원 학생이 그림 선택에 따라 피험자들은 A집단과 B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림선택과 관계없이 실험보조자가 임의로 A 또는 B집단으로 할당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그림선택에 따라 집단구분을 한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로는 실험자가 임의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다른 상황은 실험자 임의구분상황과 동일하였다.

결 과

조작검증

실험자 임의구분 집단은 조작검증으로서 피험자들의 집단선택의 자유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집단구분 방법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집단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택했는가 하는 집단선택의 자유성에 차이가 있었다. 실험자가 임의로 집단을 구분(M=2.28)한 경우보다 그림선호(M=4.61)에 의해 자신의 집단을 선택한 피험자들이 집단선택이 자유로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집단선택에 대한 선택 지각이 높을수록 집단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집단구분에 따른 집단선택의 자유성의 t 검증결과는 아래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집단구분에 따른 집단선택의 자유성의 t 검증결과

집단선택의 자유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임의구분	그림선호	
	임의구분	2.28	1.68	-7.93***
	그림선호	4.61	1.50	

*** p<.001

집단구분 방법과 집단교류성에 따른 집단성 지각

집단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측정문항(근접성, 동질감, 유사성)에서 집단구분 방식과 대면상호작용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문항별로는 집단구분에 따라 내집단 성원들의 근접성을 지각하는 경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1, 113)=.39, ns)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실험자가 임의로 집단을 구분한 조건보다는 그림선호 조건에서 내집단 성원에 대해 더 근접성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2. 집단구분과 최소/대면집단에 따른 집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임의집단구분			그림선호		
	최소	대면	전체	최소	대면	전체
근접성	3.19(.23)	3.56(.24)	3.37(.16)	3.29(.23)	3.75(.24)	3.52(.16)
동질감	3.48(.24)	4.19(.25)	3.56(.16)	3.65(.24)	4.25(.25)	4.28(.17)
유사성	2.48(.22)	3.11(.23)	2.97(.15)	4.19(.22)	4.32(.23)	4.25(.15)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집단 교류 유무에 따른 근접성 지각에서는 최소집단보다는 대면집단에서 근접성을 더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동질감 지각에 있어서도 집단구분조건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실험자 임의집단구분보다는 그림선호에 의한 집단구분에서 동질감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에 집단 교류유무에 따른 최소대면 집단에서는 동질감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 113)=7.16, p<.01). 최소집단보다는 대면집단의 피험자들이 자신의 집단성원에 대해 동질감을 지각하였다.

유사성 지각에 있어서 실험자가 강제로 집단을 구분한 경우보다 그림선호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에 집단성원들과 유사성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F(1, 113)=42.45, p<.001).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그림을 선호한다는 것에 따라 같은 집단에 소속됨으로 인해 내집단 성원들의 유사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집단 성원에 대한 평가

내집단 성원에 대한 평가에서 집단범주화 방식과 상호작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집단 성원에 대한 평가(호감)에 있어서 실험자가 강제로 집단을 구분한 조건과 그림선호에 의해 집단을 구분한 조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최소집단이나 대면집단상황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 113)= 5.24, p<.05).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없었던 최소집단 상황의 피험자들보다는 대면 토의를 하였던 집단의 피험자들이 집단성원에 대해 호감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집단 상황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반면에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진행했던 대면집단에서는 집단성원들 상호간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호감을 형성하는데

표 3. 집단구분과 최소/대면집단간의 내집단 성원에 대한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

	임 의 구 분			그 립 선 호		
	최 소	대 면	전 체	최 소	대 면	전 체
호감	4.58(.12)	4.96(.13)	4.53(.08)	4.48(.12)	4.68(.12)	4.82(.09)
친근성	4.45(.14)	4.19(.15)	4.31(.10)	4.45(.14)	4.54(.15)	4.49(.10)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외모와 말투와 같은 외적 단서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친근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분배과제에 있어서 내집단 편애

내집단 편애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A 집단의 피험자들이 분배표에서 A 집단의 성원과 B 집단의 성원에게 분배한 점수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A 집단의 피험자들은 자신의 내집단인 A 집단의 성원들에게 더 많은 점수(M=57.87)를 분배하고 B 집단의 피험자들도 자신의 내집단인 B 집단에 더 많은 점수(M=55.48)를 분배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인 내집단 편애점수의 검증은 아래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내집단 편애점수의 t 검증

	점수구분	평균	표준편차	t
A 집단	A 집단 점수	57.87	13.18	5.17 ***
	B 집단 점수	42.13	13.18	
B 집단	A 집단 점수	44.52	13.23	-3.54 **
	B 집단 점수	55.48	13.23	

** p<.01, *** p<.001

집단 구분에 따른 내·외집단에 대한 편애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내집단에 더 많은 점수를 분배하는 일관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소 집단/대면집단에 따른 내집단 편애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최소집단 상황과 대면토의집단 상황에서 내·외집단 범주화의 방법(임의구분/그림선호)에 따라 집단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분배과제와 인상평가에서 내집단 편애 경향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주된 결과를 가설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성 지각의 결과에 따르면, 실험자가 강제로 집단을 구분한 조건보다는 그림선호에 의해 집단을 구분한 조건에서 피험자들이 집단선택의 자유성과 내집단 성

원들간의 유사성을 많이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선호에 의한 집단구분조건도 실험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구분된 것이지만 피험자의 인지 속에 같은 그림을 선호한다는 유사성 지각이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같은 집단의 성원으로 대면 토의할 교류기회를 줌으로써 동질감이 증폭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집단성 지각에 있어서 동질감 지각은 최소집단의 피험자들보다는 대면토의집단의 피험자들이 더 많은 동질감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최소집단상황이 서로 대면적인 상호작용도 없는 상황인데 반해 대면집단은 실험을 위해 구성된 인위적인 집단이라 하더라도 서로 의사소통하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 내집단 성원들끼리 공동운명성 내지는 동질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내집단 성원에 대한 호감에 있어서 집단구분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최소집단/대면집단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최소집단보다는 대면집단에서 내집단 성원에 대해 더 호감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집단에서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대면적인 집단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외적인 단서들이 내집단 성원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배과제는 실험에 참가한 조건으로 내·외집단 성원에게 가산점(학점)을 주는 과제였다. 이러한 점수분배과제에서 일반적인 내집단 편애 경향(분배편차)이 나타났다. 즉, 자신의 내집단 성원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분배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단구분 조건과 최소/대면집단 간에는 내집단 편애경향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평균적으로 내집단 성원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과제로서 학생들이 관심이 높은 성적 가산점을 사용하였는데 집단 구분 시 같은 과 학생과 다른 과 학생들을 A집단과 B집단에 동일하게 분포하게 하였는데 옆에서 외집단의 구성원인 같은 과 학생에게 내집단 편애행동을 보이는 점수분배보다는 동등 분배하는 경향(5점 대 5점)이 많았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우리를 강조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인 것 같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대인관계가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상호 의존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된다(Agnew, Van Lange, Rusbult, & Langston,

1998). 이런 관계(예, 친밀한 관계)에서는 자신 속에 상대방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양자간에 형평관계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라도 크게 불만스러워하지 않는다(Medene, Teal, & Slavich, 2000). ‘나’를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우리’를 강조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분배할 때, 정의로운 분배를 추구하려는 욕구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간에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형평분배보다는 균등분배를 선택함으로써 그 갈등을 해소하는 가능성이 높다(고재홍, 2001).

실험 2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도 내·외집단 범주화(임의구분, 그림번호에 따른 구분)와 최소집단/대면집단상황에 따라 집단성원들간의 정체감 형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집단정체감이 분배과제에서 내집단 편애행동으로 나타나는가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인터넷 실험(최소집단과 채팅집단)은 피험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주로 방과후 시간인 점을 감안하여 밤 10시 이후에 실시되었다. 인터넷 최소집단 실험은 실험자와 E-mail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채팅 집단실험은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음(www.daum.net/psylab) 카페에 심리학 실험실이라는 방을 개설하여 이곳에 접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구포지션 정하기에 관해 토론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접속과 채팅에 40여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방 법

실험설계

본 실험의 방안은 2(집단범주화방법: 임의구분/그림번호)×2(최소/대면집단상황)의 요인방안을 이용한 완전무선설계(between subjects design)를 하였다. 집단범주화방법에서 임의구분은 실험자가 임의로 A 또는 B집단으로 구분한 조건이며, 그림번호에 의한 집단구분은 두 가지 그림 중 피험자 자신이 선호하는 그림을 선택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집단 A 또는 B로 무선 할당된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림번호에 의한 집단구분 방법도 어떤 그

림을 선택했는가에 관계없이 집단을 구분한 조건이었으나 피험자들은 자신의 그림선택에 따라 집단이 구분되었다는 유사성 지각을 강조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각 조건 당 약 10명의 학생들을 무선 할당하였다. 최소집단상황은 심리학의 이해를 수강하는 41명의 학생이 참가하였고, 채팅상황은 42명의 학생으로 실험참여로 가산점을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 처치

집단 범주화방법: 실험자 임의 집단범주화조건은 실험자가 피험자들을 임의로 A 또는 B집단으로 범주화한 조건으로 사전에 개별 메일을 보내 A 또는 B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림번호에 의한 집단 범주화 조건은 두 가지 그림중 한가지 그림을 선택하게 한 후 A 또는 B집단으로 범주화한 조건이었다.

집단 교류 유무(최소집단/채팅 집단): 최소집단은 실험자와 실험참가자간에 메일로만 접촉하여 집단을 범주화한 조건이고 채팅 집단은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40분간 서로 채팅을 통해 의사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 집단 범주화 조건이었다.

종속변인 측정치

집단성 지각 및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평가 문항

7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 및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평가문항이다. 먼저 “자신이 속한 집단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가”하는 집단선택의 자유성, 집단성 지각과 관련된 3문항으로 “같은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배를 탔다거나 혹은 모두 함께 했다는 동질감 내지는 일체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동질감 지각,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과 어딘지 모르게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유사성 지각,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근접성 지각,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인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평가(호감, 친근성) 문항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배 과제

내집단 편애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참가의 조건

으로 5점의 점수를 분배한다고 설명하고 피험자들에게 자신의 내집단과 외집단인 A집단과 B집단 성원들에게 분배할 점수를 0에서 10점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분배과제를 실시하였다. 10점의 점수를 두 집단이 나눠 갖는 분배는 전적으로 피험자 자신들의 의견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A집단과 B집단 성원에게 분배한 점수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절차

먼저 최소집단의 실험자 임의 집단 범주화조건에서는 사전에 피험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한 후 인터넷 실험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5점의 학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을 한 후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개별 메일을 보내서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험자가 피험자들을 임의로 A 또는 B집단으로 구분하였다. A집단의 피험자들에게 “당신은 A집단의 10번 피험자입니다. 당신의 ID는 A-10입니다”, B집단의 피험자들에게는 “당신은 B집단의 10번 피험자입니다. 당신의 ID는 B-10입니다”라는 집단 구분을 통보하는 메일을 설문지(집단성)와 내집단 선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가산점 분배표를 첨부파일로 함께 보냈다. 집단성 측정 설문지와 가산점 분배표는 피험자들이 개별로 작성하여 실험자의 메일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모든 상황은 오프라인 상황과 동일하다.

그림선호에 따른 집단 범주화조건에서는 사전 설문지와 함께 그림을 각 피험자들의 메일로 보낸 후 두 가지 그림 중 선호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그림선호와 관계없이 피험자들을 A 또는 B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ID와 사후 설문지 그리고 가산점 분배표를 피험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고 즉시 설문지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다.

채팅집단의 실험자 임의 집단 범주화조건에서는 실험 전에 심리학 실험실이라는 인터넷 카페(www.daum.net/psylab)를 개설한 후에 피험자들의 개별 이메일 주소로 인터넷과 관련된 심리학 실험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실험 참여 점수를 주겠다는 메일을 보내서 이 카페에 가입하도록 했다. 약속한 날 밤 10시에 카페에 접속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 게시판에 사전 설문지를 올려놓아서 피험자들이 설문지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실험자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

인터넷 실험 당일 피험자들이 인터넷 카페 채팅 방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대화 방 A(A집단)와 대화 방 B(B집단)로 들어가게 한 후, 오프라인(off-line) 상황과 동일하게 축구 포지션 정하기에 관한 집단 토의를 실시하게 하였다. 집단 토의의 결과 공격수, 수비수 등 포지션에 따라 피험자들의 개별 아이디(A-1, A-2, A-3...)를 게시판에 올리게 했다. 집단토의가 끝난 후 실험에 참가하여 감사한다는 공지를 올린 후 사후 설문지와 가산점 분배표를 각 피험자들에게 보내 다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채팅 집단의 그림 선호에 따른 집단범주화조건에서는 미리 사전 설문지와 그림을 피험자들에게 개별 메일로 보내서 선호하는 그림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 후 피험자들에게 그림 선호 결과에 따라 당신은 집단 A-1, 집단 B-1이라는 아이디를 주고 약속한 날 밤 10시에 심리학 실험실이라는 인터넷 카페(www.daum.net/psylab)에 접속하여 축구 포지션 정하기를 주제로 집단 토의를 실시하였다. 그 외의 상황은 실험자 임의 집단범주화 조건과 동일하다.

결 과

조작검증

실험자 임의 집단범주화에 따른 조작검증결과에 따르면, 실험자가 임의로 집단을 구분한 조건($M=2.72$) 보다는 그림선호($M=4.48$)에 의해 집단을 구분한 조건의 피험자들이 집단선택이 자유로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t=-4.10, p<.001$).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off-line) 상황과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실험참가자가 집단범주화를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지각한다면 집단성을 높게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지각 유사성에 따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내집단으로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집단구분 조건과 최소/채팅상황에 따른 집단성(근접성, 동질감, 유사성) 지각

집단구분조건과 최소/채팅상황에 따른 근접성, 동질감 유사성 지각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과

표 5. 집단구분조건과 최소집단 채팅상황에 따른 집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임 의 구 분		그 립 선 호			
	최 소	채팅 전체	최 소	채팅 전체		
근접성	3.85(.28)	3.94(.25)	3.90(.86)	4.00(.28)	3.40(.32)	3.74(1.18)
동질감	4.31(.36)	4.94(.32)	4.46(1.23)	4.62(.36)	4.00(.41)	4.35(1.40)
유사성	3.85(.34)	3.56(.30)	4.26(1.14)	4.62(.34)	3.80(.38)	3.69(1.28)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집단구분 조건에 있어서는 그림선호조건보다는 실험자 임의집단구분 조건에서 근접성, 동질감, 유사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선호조건에서는 채팅집단보다는 최소집단에서 동질감, 유사성, 근접성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임의구분조건에서는 최소집단보다는 채팅집단에서 근접성과 동질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집단구분과 최소집단/채팅상황에 따른 집단성원에 대한 평가

집단구분과 최소채팅집단에 따른 내집단 성원에 대한 평가(호감과 친근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상호작용과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집단구분에 있어서 그림선호에 의한 집단구분조건보다 강제집단구분 조건에서 내집단 성원에 대해 더 호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최소/채팅조건에 있어서는 최소조건보다는 채팅 조건에서 내집단 성원에 대해 더 호감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친근성에 있어서도 최소집단보다는 채팅집단에서 내집단 성원에 대해 더 친근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6. 집단구분과 최소집단 채팅상황에 따른 집단성원에 대한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

	임 의 구 분		그 립 선 호			
	최 소	채팅 전체	최 소	채팅 전체		
호감	4.46(.25)	5.06(.22)	4.79(.90)	4.62(.25)	4.90(.28)	4.74(.92)
친근성	4.00(.28)	4.69(.26)	4.38(1.05)	4.23(.28)	4.50(.32)	4.35(1.03)

주) () 안은 표준편차임

분배과제에서의 내집단 편에 경향

분배과제에서 내집단 편에점수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에 따르면, 내·외집단에 분배한 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A 집단의 성원들은 B집단(M=42.90)보다 자신의 내집단인 A집단(M=57.10)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분배하였다. 또한 B 집단의 성원들은 A 집단(M=41.38)보다 자신의 내집단인 B 집단(M=58.62)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분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상황에서도 내집단 편에(분배편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집단 범주화방법과 집단교류방식에 따른 내집단 편에경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7. 분배과제에서 내집단 편에의 t 검증결과

	점수구분	평 균	표준편차	t
A 집단	A점수	57.10	17.92	2.204 *
	B점수	42.90	17.92	
B 집단	A점수	41.38	15.29	-3.036 **
	B점수	58.62	15.29	

*p<.05, **p<.01

논 의

실험 2에서는 현실상황이 아닌 인터넷이라는 온라인(on-line)으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도 내·외집단 범주화에 따라 집단성이라는 것이 형성되며, 이러한 집단정체감이 내집단 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작검증으로서 집단구분에 따른 집단선택의 자유성에 있어서 실험자가 강제로 집단을 구분한 조건보다 그림선호에 의해 집단을 구분한 조건의 피험자들이 집단선택의 자유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off-line) 상황과 동일하다. 온라인(on-line) 상황에서도 실험자가 강제로 집단을 구분한 조건보다는 그림선호에 의해 집단을 구분한 경우 자신이 집단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집단구분조건과 집단교류의 유무(최소채팅집단)에 따른 집단성 지각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성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그림선호에 따른 집단구분에 있어서는 채팅집단보다 최소집단이 더 내집단의 성원에 대해 근접성, 동질성, 유사성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임의집단구분 조건에서는 근접성과 동질감은 채팅 집단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반면에 유사성은 최소집단에서 더 높게 지각하였다.

내집단성원에 대한 평가(인상, 친근성)에 있어서도 최소채팅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최소집단보다는 채팅집단이 내집단 성원에 대해 더 호의적으로 인상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채팅집단은 최소집단과는 달리 서로 의사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더 많은 빈도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긴장을 줄일 수 있는 행동표현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간단히 주고받는 메시지에서 정서표현을 전달하는 '이모티콘(emoji)'이라는 표식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상형성의 간단한 보완활동이다. 축구 포지션을 정하는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모티콘 사용으로 인해 채팅에 대부분의 집단성원들이 서로 자유로이 채팅을 진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채팅에 참여하지 않고 대화방에만 머물러 있는 집단성원에게 채팅에 참가하라는 종용과 함께 유머스런 이모티콘을 제시하였다(ID A-10 : A-13번 말 좀 해요 ^.^). 결과적으로 비록 대면접촉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지만 서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문자와 이모티콘과 같은 정서적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 인해 내집단 성원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형성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유추해본다.

분배과제에 있어서 내집단 편애 현상이 나타났다. A 집단의 성원들은 내집단인 A 집단의 성원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분배하는 분배편파를 보여주었다. 또한 B 집단의 성원들은 B 집단에 더 많은 점수를 분배하였다. 그러나 집단구분에 따른 내집단 편애량에 있어서는 동일한 처치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선호조건의 성원들이 내집단 편애 경향이 높았다.

종합논의 및 결론

Tajfel은 인간의 범주화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집단이란 개인의 의식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음을 규명하

고, 집단은 개인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 즉 집단이 개인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안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견해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집단 속의 개인'이라는 틀을 '개인 속의 집단'이라는 틀로 바꾸어서 보게 만든 것이다. '개인 속에 있는 집단'을 분석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속에 있는 집단을 연구함으로써 환원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않고도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ajfel의 실험 패러다임을 인터넷이라는 온라인(on-line)상에 응용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Tajfel과는 다른 관점인 Lewin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함수적 관계에 따른 집단 현상에 대한 설명 또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²⁾

본 연구는 단순한 내·외집단 범주화가 내집단 성원들에게 집단 정체감을 형성하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집단 정체감이 내집단 편애행동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특히 Tajfel의 최소집단 실험과 더불어 대면토의 집단 상황에서도 내집단 편애경향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도 단순한 집단 범주화만으로도 집단 정체감이 형성되고, 이러한 정체감이 내집단 편애행동(분배)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오프라인 상황에서 최소집단 상황과 달리 대면적인 접촉이 가능하고 더욱이 서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대면토론 상황에서 내집단 성원들에 대해 더 동질감, 유사성, 근접성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내집단 성원에 대한 인상평가에 있어서도 최소집단보다는 대면집단에서 더 호의적인 인상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면접촉과 커뮤니케이션(face to face communication)이 집단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Brown, 1988). 이러한 집단정체감은 내집단 편애로 이어져 내집단 성원에게 더 많은 보수나 점수를 주는 분배편파나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인상평가상의 편파 등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난다.

2) Lewin의 집단 행동에 대한 관점은 $B=f(P, E)$ 로 공식화되고 있는데, P는 사람, E는 환경을 나타내고 있어 인터넷이라는 가상환경이 현실 상황과는 다른 현상이나 결과(행동을 포함)를 도출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실, 2001).

본 연구에서도 내집단 성원에게 점수를 분배하는 과제에서 분배편과 즉 내집단 편애를 보였다. 외집단 성원보다는 내집단 성원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분배하였다. 범주화 조작처치인 실험자 임의구분과 그림번호에 따른 집단 구분에 따라 내집단 편애에는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내집단 성원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해주고 호감이나 친근성에 있어서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최소/대면 집단에 따른 내집단 편애 경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내집단 성원에게 더 호의적인 평가나 분배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 중 온라인(on-line) 상황은 자주 접속하면서 서로 공통된 가치관이나 관심사를 가지고 채팅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일반 인터넷 포럼이나 카페와는 달리 실험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실험집단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내집단에 대한 정체감 내지는 집단성을 형성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아주 사소한 집단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단서를 제시하는 Tajfel의 최소집단상황처럼 인터넷이라는 인위적인 상황에서도 내집단에 대한 집단소속감, 동일감이 형성되리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단 성원에 대해 동일성이나 근접성을 지각하는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오프라인(off-line)상황보다 온라인(on-line)실험에서는 동일감과 근접성을 더 높지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유하게 된 것은 물론 사이버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기초로 사람들은 자기편(혹은 '우리편')과 다른 편('남의편')을 구분하게 된다.³⁾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가 현실공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현실공간보다 더 빠르게 집단형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성은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배타적인 행동이나 압력을 유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배타적인 행동이나 압력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사이버 공간은 현

실공간보다 더 집단성원들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익명성이라는 가상 공간의 특성으로 네티즌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나 가치와는 다른 상반된 태도나 의견을 가질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 실험에서 그림 선 효과제 등과 같은 지각과제에 의한 집단 구분은 집단 구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연구에서 온라인(on-line)상황을 염두하고 오프라인(off-line)에서 최소집단과 대면집단을 사용하여 집단성을 측정하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온라인(on-line)상황은 오프라인(off-line)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이점 또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온라인(on-line)상에서 집단(community)의 속성에 대한 연구 및 집단과정(수행이나 의사결정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온라인(on-line)상에서의 집단이 실제적인지 아니면, 오프라인(off-line)과 연계되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또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인터넷에서 집단은 존재하는가'이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집단을 실체라고 지각하는가'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다. 사이버 공동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상의 많은 집단들은 흔히 현실공간의 집단만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회원으로 등록을 하지만, 탈퇴는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집단의 회원인지도 모를 정도로 쉽게 회원이 되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공간에서 자주 형성되는 포럼과 같은 자리도 한 순간의 뜨거운 논쟁 이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곤 한다. 실제로 웹 상에서 수없이 많은 채팅방이나 토론방이 생겨나지만 이런 모임에 잠시 이웃거리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행동이상의 집단적 특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가상공동체는 참여하는 개인을 나타내는 현실적 특성이나 범주라기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들이 보이는 활동이나 참여내용이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공통적인 관심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스스로를 나타낸다. PC통신이나 인터넷 속에서 수없이 많은 동호회나 커뮤니티들이 형성

3) 최상진(2000)에 따른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원형으로 한 인지적 집단 즉 우리 집단을 형성하고, 감정에 개입되는 '우리편' 의식이 있어 이를 '우리성'이라 지칭하였는데, on-line상에서도 인지적으로 우리 집단을 형성하고 감정이 개입되는 우리 집단 즉 내집단 편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자아존중감과 우리성의 관계를 on-line 상에서 측정 하진 않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되는 이유는 특정 주제나 관심을 중심으로 자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서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공통적인 주제나 관심을 찾는 경험을 통해, 개인은 더 이상 개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가상적인 집단정체성으로 자신을 표현, 지칭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바로 자신을 타인으로 확장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 타인이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를 알리는 일이다. 따라서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이런 상황은 결국 모두가 서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게 된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든다. 이 점이 사이버 공동체가 현실의 공동체와는 또 다른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체는 현실 상황에서 개인적 특성(나이, 사회적 역할, 또는 지식의 정도 등)의 한계로 표현할 수 없었던 사회문제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황상민, 한규석 1999).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의식은 대개 대중문화적 요소 및 사회현상의 비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과 관련 있다. 현실세계에서는 개인이 한 명의 참여자 입장에서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직접 그리고 즉각 표현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들은 현실세계보다 훨씬 확장된 자기 표현의 성취를 경험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체적 속성은 최근 들어 새로운 압력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이트나 동호회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동호회의 원래 취지는 비슷한 생각이나 취미를 가진 네티즌들끼리 모여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뛰어넘어 가상공간의 압력단체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체 경험을 통해 대중문화의 감시자 또는 수용자라는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내 보이는 경우는 방송 드라마와 쇼, 오락 프로그램 가요, 영화 등 거의 모든 대중 문화영역에서 나타난다 즉 사이버 공간의 집단은 마치 하나의 사회여론 집단으로 기능하는 듯 보인다. 이전에는 방송사가 좌우하던 가

요계의 히트곡 제조나 방송 프로그램 등이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참여와 반응에 의해 새롭게 평가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어떤 가수의 신곡 앨범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몇 개월 간의 앨범 판매에 의존하지 않고 PC통신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그 앨범에 관심을 가진 어떤 공동체의 반응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되는 상황이다. 현실 공간이라면 개인이 가진 이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압력집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동체적인 관심을 가진 가상적 공동체가 존재하였기에 즉시 공론화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 (2001). 집합주의 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분배규범의 선호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3), 1-16.
- 김금미 (2001). 집단의 사회정체성과 지위에 따른 내집단 편애 : 성별집단과 최소집단에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실 (2001)역. *집단역학*. 서울 : 시그마프레스
- 이해경, 이수원 (1994). 사회적 범주화, 가치선호 및 내집단 편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2), 108-123.
- 최상진 (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 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발표논문집*, 229-244.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홍기원 (1994). 최소집단과 경쟁집단에서의 성과편파.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2), 142-155.
- 황상민 (2000). *사이버 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서울 : 김영사.
- 황상민 (2001). *인터넷 심리학*. 서울 : 에코리브르
- 황상민, 한규석 (1999). *사이버 공간의 심리*. 서울 : 박영사.
- Angnew, C. R., Van Lange, P. A. M., Rusbult, C. E., & Langston, S. A. (1998). Cognitive interdependent : Commitment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74, 939-954.
- Aschenbrenner, K. M., & Schaefer, R. E. (1980). Minimal group situations : comments on a mathematical model and on the research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389-398.
- Billig, M., & Tajfel, H. (1973).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7-52.
- Bornstein, G., Crum, L., Wittenbraker, J., Harring, K., Insko, C. A., & Thibaut, J. (1983).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orientations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321-350.
- Brown, R. (1988). *Group process : Dynamics within and between groups*. New York : Basil Blackwell.
- Burr, V. (2002). *The person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Press.
- Campbell, D. T. (1958). Common fate, similarity, and other indices of the status of aggregates of persons as social entities. *Behavioral Science*, 3, 14-25.
- Deutsch, M. (1949).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Human relation*, 2, 199-231.
- Han, G., & Park, B. (1995). Children's choice in conflict :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the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8(3), 298-313.
- Knowles, E. S., & Brickner, M. A. (1981). Social cohesion effects on spatial cohe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309-313.
- Korenman, J., & Wyatt, N. (1996).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 Linguistic, soci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pp. 225-242). Amsterdam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Kraut, R. F., Egidio, C., & Galegher, J. (1990). Patterns of contact and communication in scientific research collaboration. In J. Galegher, R. E. Kraut, & C. Egidio(Eds.), *Intellectual teamwork : Social and technological foundations of cooperative work* (pp. 149-171). Hillsdale, NJ : Erlbaum.
- Lea, M., & Spears, R. (1991).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de-individuation, and group decision-making. In S. Greenberg(Ed.), *Computer-supported cooperative work and groupware* (pp. 155-174). New York : Harcourt Brace Joanovich.
- Medene, L. J., Teal, C. R., & Salvich, S.(2000). Including the other in self : Implications for judgments of equity and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396-419.
- Newcomb, T. M. (1943). *Personality and social change*. New York : Dryden.
- Schachter, S., Ellertson, N., McBride, D., & Gregory, D. (1951). An experimental study of cohesiveness and productivity. *Human Relations*, 4, 229-238.
- Tajfel, H. (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 96-102.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 New York : Academic Press.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Billig, M., Bundy, R.,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9-178.
- Turner, J. C. (1980). Fairness or discrimination in intergroup behavior? A reply to Brantwaite, Doyle and Lightbow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131-147.
- Turner, J. C. (1982).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In H. Tajfel (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pp. 15-40).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 C. (1983). Some comments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orientations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315-367.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 A self-categorization theory*. New York : Blackwell.

Wallace, P. M. (1999). *The psychology of the intern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Zander, A., Stotland, E., & Wolfe, D. (1960). Unity of group, identification with group, and self-esteem of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28 , 463-478.

K C I

Effects of Group Categorization on Perceived Groupness and In-Group Favoritism on On- and Off-Line

Mee-Hee Kim Kibum Kim Young-Ran Cha
Chung-Ang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University of Suwon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group categorization on group identity formation and ingroup favoritism on internet. In particular, attempts were made to illuminate the role of group categorization (forced group categorization and Tajfel's categorization paradigm) and the presence of communication exchange (minimal group and face to face communication group) in group identity and ingroup favoritism on both on-line and off-line situation. Then, we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of perceived group identity and ingroup favoritism on internet that guaranteed anonymity.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the first study, a total of 120 undergraduate students were participated. The result revealed that subjects tend to perceive the homogeneity, similarity and proximity about ingroup members in the situation of face-to-face communication. In addition, subjects evaluated in-group members more favorably and more intimately in the situation of face-to-face communication. As a result, facial contacts and communicatio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formation of group identity (perceived groupness). This group identity (perceived groupness) resulted in ingroup favoritism or ingroup bias. Most subjects showed distribution bias in the present study. In other words, subjects gave more scores in-group members than outgroup members. In the second study, we investigated the perceived groupness and ingroup favoritism on on-line situation (i.e., internet). A total of 83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Unlike study 1, chatting on internet which was talked about one soccer team's position was conducted on on-line situation. Subjects perceived homogeneity and proximity more than off-line situa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inimal group situation and internet chatting situation in term of perceived groupness, intention of conformity, evaluation of ingroup members. The effects of group categorization on perceived groupness were not significant too. These results implied that internet is the new medium of communication and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n-line chat is a relative newcomer to the communication sense, and it mix features of face to face conversation and phone talk because it is synchronous. Even though, this inference is not possible through this experiment, these result reflected the culture of internet absorbed in our society.

Key words : social identity, group categorization, ingroup favoritism, groupness, internet

원고접수 : 2005년 6월 9일
심사통과 : 2005년 7월 22일